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사역경험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Ministry Experiences of Ministers in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송희영 (Hee-Yeong Song)**

강연정 (Yeon-Jeong Kang)(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Although the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have played one of the major roles in Korea's spiritual revival for the past 100 years, the church community has taken little notice of the ministers of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refore, is to raise the understanding of ministers in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to construct a soun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urches; and to help campus ministers equip themselves for not only their current missions but also their future lives.

Seven major components are as follows: 'Tendencies to invite a current student leader to be a minister-to-be,' 'Cultivating the atmosphere of focusing on the essence of faith,' 'Holding-the-bag phenomena, that is, being putting in a situation where one minister should unfairly take excessive responsibilities,' 'Bearing your cross of poverty through fundraising,' 'Churches' negative biases on mission organizations,' 'The taboo on planning their future career after finishing their current mission,' and 'The longer you minister, the earlier you fail in the job market.'

Given these components, practical issues on their calling and their vocational satisfaction, expertise and independence, and reality awareness and future plans, were discussed. Also, further research is suggested concerning the relationship with churches and the ministers' future careers as well.

Key words :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Ministers in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Ministry Experiences spiritual maturity of the workplace ministry, weekend church, weekday church

* 2021년 2월 19일 접수, 3월 13일 최종수정, 3월 14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저자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기독교교육학 박사,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shy1220@hanmail.net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기독교교육학 교수,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yjkang@kosin.ac.kr

I. 서론

한국 캠퍼스선교단체의 시초는 1920년 YMCA, 감리교회의 엽윗청년회, 장로교회의 면려청년회, 성결교회의 신생청년회 등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이영현, 1978). 해방이후 기독교 학생 운동은 크게 두 흐름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YMCA, YWCA 중심으로 일어난 기독교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한 기독교학생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장로교 면려회와 SFC 기독교학생운동 등 선교 운동에 강조점을 둔 학생운동이었다. 5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캠퍼스에 자리를 잡으며 60년대와 70년대에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캠퍼스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으며,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기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다(문정배, 2006).

한국 선교단체의 시초라고 생각되는 시점으로부터 올해로 100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삼더라도 7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생선교단체는 캠퍼스 및 해외에서 복음전도와 성경적 리더십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국내·외에 끼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캠퍼스선교단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캠퍼스선교단체가 가진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교회와 협력구조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이해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이 문화가 다른 해외에 파송되는 해외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파송 선교사보다는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며,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전도사 등이 대부분 은퇴까지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에 비해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장기 사역보다는 단기 사역자의 비중이 많고, 사역자의 수도 교회 사역자나 해외선교사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특수사역자라는 점에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에 대한 관심이 한국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기종(2019)은 캠퍼스 사역의 복음화 운동이 청년의 때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이들을 길러냈지만, 현시대의 캠퍼스 청년들은 그늘진 세상 가운데에서 열정을 잃고 살고 있으며, 교회 청년대학부의 감소,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의 위축 등으로 한국 캠퍼스 복음화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았다. 장신근(2015)은 오늘의 한국교회는 내적·외적 차원에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교회학교의 양적 감소, 아동·청소년 대 성인 교육의 이원화, 입시 교육의 악영향, 교육 현장의 분리와 왜소화, 신앙 정체성 형성 교육의 약화, 개혁 의식 양육 교육의 약화, 대화적·소통적 교육의 약화 등 중요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잃어가는 청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애쓰는 캠퍼스선교단체 간사들이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큰 힘이며,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보인다. 캠퍼스선교단체가 과거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고, 학원에서의 전도와 훈련이 어려운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학생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적은 수와 과거보다 복음의 관심이 현저히 낮아진 현실을 생각할 때 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사역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다양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역자로서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들과 더불어 캠퍼스선교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관심은 한국교회와 청년사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갖고 돌보지 않는다면 캠퍼스선교현장이라는 중요한 사역의 장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청년들의 전도와 기독교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다양한 방향으로 섬길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선교단체의 간사로 훈련 받아 사역해 온 현장 전문가들을 사직과 함께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현재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사역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및 사역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를 오로지 사역자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으로 인해 사역이 오래 지속되기 힘들며 교회와 연계하여 사역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앞으로의 삶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선교단체 사역자로서의 삶 이후에 어떠한 목표와 계획, 그리고 준비행동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성숙한 사역과 삶을 위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캠퍼스선교단체

선교단체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지만 선교단체를 정의할 때 대체로 두 가지로 선교단체를 표현하는데, 그 첫 번째는 파라처치(para-church)로서의 선교단체이다. Snyder(1975)는 교회(Church)와 교회 밖의 선교단체(Para-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파라처치(para-church)라는 용어는 '지역교회를 보조하거나 도와주는 의미를 가지는 조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

나 많은 선교학자들과 선교지도자들은 선교단체에 대한 파라체치 용어 사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교회에 대한 2차적이고 종속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이었다. 선교단체는 종속물이나 부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라는 판단으로, 처음부터 교회는 교회이고 선교단체는 선교단체였다는 양분 구조를 강조하며, 선교단체를 교회의 종속적인 부분으로 여기는 것에 단호히 거부했다(차병준, 2000). Winter(1970)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적 두 구조를 말하며 ‘Modality’인 교회와 ‘Sodality’, 즉 선교단체’를 들고 있다. 소달리티(Sodality)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연령층, 교육배경,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독특한 친교집단을 가리키는데, 이런 구조는 모달리티 구조에 비해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으며, 기동성이 크다. 따라서 전도와 양육을 중심으로 세계선교와 전문사역에 주력하며 대학생 등이 적합한 사역의 대상이라고 본다(이광순, 1993).

선교단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학자들도 저마다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White(1983)는 선교단체를 어떤 영적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조직이 기성교회 회중의 권위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Dayton(1991)은 선교단체는 지역교회나 교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라 정의하였다. 김영철(1990)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와 더불어 존재하는 기관으로 교회 사명의 한 부분을 수행하는 대학생 선교단체를 포함한 각종 선교 기관들이라고 정의하며 선교단체는 가시적인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Boer(1961)는 선교단체가 지역교회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고, Peters(1984)는 선교단체를 하나의 역사적 우연으로 임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지역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면 없어져야 할 존재로 보았다.

Jason & Perez(1993)은 지위면에서 선교단체는 교회에 종속되며, 존재면에서는 교회와 동등하고, 기능면에서는 때로 교회의 귀감이 되며, 성취면에서는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교회와 함께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선교단체는 교회로부터 책임을 위임 받았으므로 종속적이나 교회와 더불어 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동등하며, 교회의 귀감이 되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승장(1990)은 비교적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이 성숙한 영국교회의 사례를 통해 교회를 중심축으로 하면서 선교단체의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제안하였다. 캠퍼스 선교단체는 지역과 교파의 한계를 넘는 특수 사회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전도하는 팔’이라고 이해한다면, 선교단체와 교회의 경쟁 관계나 갈등 구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캠퍼스선교단체는 영국의 ‘기독교학생회’, 미국의 ‘캠퍼스복음화운동’ 등과 같은 학생선교단체들이 지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직, 간접적인 영향으로 한국에 생겨났다(정준기, 2001). 역사

적 흐름 속에서 캠퍼스선교단체는 대학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 공동체로서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Howard(1970)는 Zinzendorf가 독일에서 다섯 소년들과 결성한 ‘겨자씨 모임(The Order of the Grain of Mustard Seed)’, 영국의 Wesley의 고전과 신약성경 연구모임인 ‘Holy Club’,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헌신한 7명의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확장해 갔던 모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국 캠퍼스선교단체의 시초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1920년 YMCA, 감리교회의 엽윗청년회, 장로교회의 면려청년회, 성결교회의 신생청년회 등의 활동으로 출발하여(이영현, 1978), 해방이 후에는 YMCA, YWCA 중심으로 일어난 기독교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한 기독교학생운동과 장로교 면려회와 SFC 기독교학생운동 등 선교운동에 강조점을 둔 학생운동의 양 축으로 진행되다가 50년대에 들어서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캠퍼스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캠퍼스에서의 선교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에서도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문정배, 2006). 남전우(1993)는 한국교회사에서 성결교회를 탄생시킨 것이 일종의 선교단체 운동의 좋은 결과에 대한 실례라고 보았다. 성결교회가 기존교회의 선교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 선교의 열정이 매우 높았던 두 명의 젊은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벌인 복음전도 운동의 성과로 성결교회라는 제도 교회를 탄생시킨 것을 볼 때, 선교단체가 교회 개척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역할이 끝나면 제도 교회로 변신하거나 해체되는데, 일부 선교단체 운동이 제도 교회가 되었을 때, 보편성의 원칙을 벗어나 그 특수성이 가진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였다. 유재덕(1994)은 196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단체가 급속히 성장하였고, 대부분의 캠퍼스선교단체가 제자훈련을 통한 성경공부, 개인전도, 경건훈련, 찬양사역, 기독교 세계관 훈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기독교 청년들에게 큰 도움과 도전을 주었다고 하였다. 1970년대에는 선교단체가 주도하는 대형집회가 한국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했으며, 1980년대에는 해외 단기선교 등이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선교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캠퍼스선교단체는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교회관의 문제 등으로 한국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교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스스로 교회화 되어 간다는 비판과 우려를 받기도 하였다(신광섭, 2002).

현재 활동하고 있는 캠퍼스선교단체들은 대부분 학원복음화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학원복음화협의회(Campus Evangelization Network)는 학원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이루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와 대학생 선교단체, 그리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 협력 가능한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989년 9월, 11개 교회의 담임목사가 발기하여 창립되었다. 학원복음화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을 설립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신앙운동(Student For Christ, SFC), 한국기독교학생회(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한국 IVF), 조이선교회(JOY), 한국대학생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 한국CCC), 한국예수전

도단(Youth With A Mission, Korea, 한국YWAM), 기독교대학인회(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ESF), 예수제자운동(Jesus Disciple Movement, JDM), 한국누가회(Christian Medical Fellowship Korea, 한국 CMF), CAM 대학선교회(Christ's Ambassador mission, CAM), 빚진자들선교회(Debtors to Saviour Mission, DSM), 제자들선교회(Disciples For Christ, DFC), 국제대학선교협의회(Campus Missions International, CMI) 등이 있다.

2.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학원이라는 현장에서 사역하는 자들을 일컫는다. 대학생 선교단체의 사역자는 대체로 '간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이유경, 2017). '간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캠퍼스선교단체에서는 신학을 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이들과 평신도로서 전임사역을 하는 이들을 아우르는 말로 이해되고 있다.

임성철(2012)은 한글성경 개역개정판에서 '사역자'라는 단어가 네 곳에서 사용되었는데(시104:4, 롬13:4, 고전3:5, 히1:7), 영어성경에서는 'minister', 'servant', 'messenger'의 단어가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사역자의 원어인 헬라어 'διδάκονος'는 일반적으로 '하인'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교회 안에서는 '특정 직분을 가진 자'에 대한 통상적 지칭이라고 하였다. 사역자의 개념을 광의적 의미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여 주인에게 속한 일꾼의 마음으로 존귀한 일에 정성껏 참여하는 모든 자"로 정의하고, 협의적 의미로는 '전문성'과 '시간'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전문적인 은사를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Chambers(1997)는 사역자는 스스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가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사명이라는 매우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보았다.

박영선(2004)은 사역자란 부름 받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름 없이 주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경에서 사역자, 하나님의 종의 표본으로 언급되는 모세, 엘리야, 이사야, 다윗, 세례 요한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임 받는 존재로서의 사역자의 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사역자는 '인간의 절망을 확인시키는 자'로서 오직 빛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더욱 두드러지고, 더욱 전면에 나서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와 은혜와 구

원의 필요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과 자리를 본인이 차지해 버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미련한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초대교회에는 본래 성직자와 평신도의 신분적으로 구별이 없는 한 백성 공동체였다. 교회 안에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뉘게 된 계기는 헬라-로마 시대에 구약성서의 제사장 모델이 목회자에게 주어지고, 이단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대표성이 필요하게 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3세기 이후부터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신분적 구분을 통하여 성직주의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루터는 만인제사장설을 통하여 성직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성직주의와 안수를 받은 성직자들이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교권주의를 거부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류장현, 2017). 종교개혁을 통하여 루터는 만인제사장설을 통하여 당시 교회와 교황의 신분적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성직자와 평신도간의 이분법적 구별을 폐지하여 평신도의 위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교회를 신분적으로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된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성직자요 평신도인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로써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교회 회복운동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김남용, 2019).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된 공동체가 아니라 학원이라는 현장에 대한 특수한 부르심을 입어 캠퍼스 복음화라는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과 시간을 드리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사역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신봉진(2017)은 캠퍼스 사역을 하는 캠퍼스선교단체의 전임간사를 인격(character)과 역량(competency)을 겸비한 지도자로서 캠퍼스를 중심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 육성, 파송하는 영적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전임 간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명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CCC의 간사 선발과정을 언급하며, 일정 기간의 합숙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며 전담 훈련간사와 함께 간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가고 내부의 수료 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간사의 특징으로 인격과 역량을 겸비한 지도자, 영적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으로 충당, CCC의 신앙고백서의 신앙을 견지하며 성경적 모범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며 선교단체조직이 간사를 선발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소명의식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과 시간을 가지고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교회가 아닌 기독교 단체의 사역자들을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로 정의하였는데,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에 대한 호칭은 단체마다 차이가 있다. 학원복음화협의회의 12개 정회원 단체에서 대부분 '간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다. DFC는 공식적으로 캠퍼

스 사역자를 '선교사'라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CAM, DSM, ESF도 '선교사'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말씀 전파자'(ESF, IVF), '훈련가'(IVF), '운동가'(IVF, SFC), '영적인 멘토'(IVF), '제자'(DFC), '그리스도의 대사'(CAM), '사역자'(DSM, ESF, JDM), '복음 전도자'(JDM), '제자 양육가'(JDM)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학복협 2009).

2019년 11월 학원복음화협의회 대표자 모임에서 각 선교단체의 간사현황을 파악하였을 때, 전체 사역자의 수는 1,947명이었고, 남자는 1,130명, 여자는 817명이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를 제외하고, 전임간사의 수가 100명이 넘는 캠퍼스선교단체는 3개이며, 50명 이상이 5개, 50명 이하가 2개, 한 자리 수의 간사가 사역하는 곳도 1개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 진행하였다. 다만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연구의 목적표집, 심층면담, 자료수집 등의 사전 연구 활동으로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현재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남녀 사역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선교단체가 운영된 시기와 활동성 및 규모를 판단하여 설립된 지 30년이 넘고 50명 이상의 전임사역자가 활동하고 있는 5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사역자들의 연령, 성별, 소속단체, 결혼상태, 사역기간, 사역지역, 사역시간, 사역대상, 사례비를 묻는 기초질문과 질적 연구를 위한 연구 동의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연구대상자 모집은 학원복음화협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각 선교단체 대표자 모임에서 동의를 얻은 후 1차로 학원복음화협의회를 통하여 각 선교단체 대표들에게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2차로 설문지를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전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회원들의 사전 동의는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각 단체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통로를 통하거나 수련회 등 선교단체 간사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도록 안내하였고,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자료는 파트타임 사역자나 선정 단체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총 132부를 회수하였고, 설문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Table 1.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32)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여자	66	50
	남자	66	50

사역기간	3년 이하	50	50
	4-6년	27	20.5
	7-10년	17	12.9
	11-15년	18	13.6
	16-20년	8	6.1
	21년 이상	12	9.1
나이분포	20대	59	44.7
	30대	46	34.8
	40대	21	15.9
	50대	6	4.5
결혼상태	미혼	61	46.2
	기혼	70	53.0
	사별	1	0.8
사역대상	대학생	113	85.6
	청소년	3	2.3
	기타	16	12.1
사례비	50만원	27	20.5
	50-100만원	34	25.8
	100-150만원	34	25.8
	150-200만원	23	17.4
	200-250만원	10	7.6
	250-300만원	3	2.3
	300만원 초과	1	0.8
사역지역	서울	35	26.5
	인천	9	6.8
	경기	9	6.8
	강원	2	1.5
	대전	4	3.0
	충청	6	4.5
	광주	11	8.3
	전라	22	16.7
	대구	3	2.3
	울산	4	3.0
	부산	14	10.6
	경상	11	8.3
	해외	2	1.5
전체		132	100.0

continued

질적연구는 문화기술지(ethnography)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였다. 문화기술지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첫째로 문화기술지는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이론의 근거를 발견하는 연구 방법이며, 둘째로 현대의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계열의 문화적 부호를 통해 살아가는데, 이러한 복합 성질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며, 셋째로 행위자의 행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분석하는 방법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기술지 연구는 사회적 삶에 대한 일상적인 기록으로, 문화생산, 특정 사회갈등, 실천행위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또한 문화기술지는 일단의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생각과 신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내부자 관점에서 참여자의 견해에 의존하고, 외부자 관점에서 참여자의 견해들을 걸러 내면서 자료를 통합한다. 일반적으로 좋은 문화기술지는 집단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서보다는 독자들이 집단에 대해 새롭고 참신한 이해를 발전시킨다(Creswell, 2007).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 접근으로의 개념으로 Geertz가 핵심개념으로 이야기하였던 심층기술의 방법으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의 의미를 그물망으로 파악하고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질적연구의 참여자는 설문에서 심층 인터뷰에 동의한 참여자들 가운데 목적 표집 하였고 이들의 추천을 받아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 눈덩이 표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D**, E**, J**, J**, S** 등의 5개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 이후 사직한 자들로 사역지역은 서울, 광주, 진주, 창원, 부산, 해외이다. 단체의 규모가 크지 않고 지역이나 연차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될 경우 선교단체의 특성상 참여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어 사역단체 및 지역은 개인별로 표시하지 않았다. 참여자 16명 중 성별은 남자 사역자 8명, 여자 사역자 8명이며, 결혼여부에서 미혼은 8명, 기혼은 8명이다. 사역자들의 성별 및 결혼여부, 연차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참여자의 범위가 고루 포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2. Background of the respondents in qualitative research(N=16)

참여자	성별	결혼여부	사역연차	신학여부
A	여	미혼	6년	일반대졸
B	남	기혼	23년	일반대졸
C	남	기혼	21년	신대원졸
D	남	기혼	3년	신대원졸
E	여	미혼	14년	일반대졸
F	남	기혼	8년	신대원졸
G	여	미혼	4년	일반대졸

H	여	기혼	4년	일반대졸
I	여	미혼	6년	일반대졸
J	남	기혼	2년	신학대졸
K	남	기혼	17년	신대원졸
L	여	미혼	30년	일반대졸
M	남	기혼	17년	신대원졸
N	여	미혼	8년(사직)	일반대졸
O	여	미혼	12년(사직)	일반대졸
P	남	미혼	3년(사직)	일반대졸

질적 연구를 위한 면담은 사전에 연락하여 연구주제에 대해 설명하였고, 구두로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면담일정을 정하였는데, 참여자들이 편의를 위하여 참여자들이 사는 지역으로 연구자가 이동하였고, 해외 참여자는 부득이하게 전화로 면담하였다. 면담 장소는 사역 대학 인근의 스터디룸과 선교단체 회관, 참여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을 위해 참여자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연구자를 소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설명문을 제공하여 연구목적과 방법, 윤리적 보호 측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고,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자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했다. 그리고 모든 면담은 녹음될 것이고, 연구 참여자의 의사로 언제든지 연구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했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면면담 또는 전화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수집된 자료가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모든 개인적인 정보는 자료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실제 분석과정에서는 대상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 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연구과정에서 참여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원하는 부분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체 삭제할 수 있음도 알렸다. 그리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지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뒤, 보이스레코드를 활용하여 녹음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참여자가 간사의 길을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현재의 상황과 미래계획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분위기로 이야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과 선교단체 내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다소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생략하여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재질문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면담이 되도록 요청되, 지나친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자에게서 캠퍼스 현장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및 편지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허락 하에 학생들과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실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하였으며, 자료 분석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미를 확인해야하는 부분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으며 자료를 정리하였다. 심층인

터뷰 자료는 전사하여 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삭제와 추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참여자들이 삭제하기 원하는 내용은 삭제하여 연구 결과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면담의 진행은 2019년 3월 16일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 진행하였고, 16명의 질적 연구 참여자 가운데 7명은 2회, 9명은 1회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1회에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전사자료는 총 312장이다. 사용된 자료는 지정된 3년 동안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것이다.

연구자는 면담 및 자료 분석, 관찰을 통하여 참여자의 삶을 관찰하고, 참여자들의 문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자료를 통합하고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이란 연구자가 자료로부터 일련의 주제를 도출해 내는 일체의 과업이라 정의해 볼 수 있다(김영천, 2016). 분석절차는 실용적 절충주의 입장을 종합하여 ‘포괄적 분석 절차’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일련의 반복되는 내용이나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코드를 부여하였다. 초기 코드들은 유사한 내용들을 묶어 범주화 한 다음,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주제를 추출하였다. 전체 자료는 NVivo 12 프로그램을 통하여 코딩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의문이 생기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초기코딩에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코드를 77개 총 1,012회 추출하였고, 7개의 구성요소와 20개의 하위구성요소를 범주화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였다.

IV. 연구결과

질적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7개의 구성요소와 20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범주화하였다.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자들의 독특한 문화로 이들이 학생일 때 훈련 받은 선교단체에 콜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간사를 하게 되는 점, 조직적이고 위계적이지 않은 선교단체의 사역 시스템, 독립성이 보장되는 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빈약한 점, 후원을 받아 생활하고 공동 폴링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점, 교회와의 갈등, 사역 이후의 진로계획의 부재와 경력단절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였다.

Table 3.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학생 리더를 사역자로 콜링하는 시스템	은혜 받은 곳에서 일하기 원함
	외면하고 싶은 부름
	학생들이 있는 곳, 캠퍼스로 들어감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역 문화	신앙의 가치와 일치된 삶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역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가르침
독박사역!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분위기	혼자 책임져야 하는 사역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
	영적 성장을 위한 각자의 발버둥
함께 지고 가는 빈곤의 십자가, 후원과 풀링	후원과 풀링으로 이어가는 삶
	노동 아닌 헌신, 돈이 없는 것은 당연함
	줄어드는 후원,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
선교단체를 향한 교회의 불편한 시선	신학의 부재, 전문성에 대한 의심
	학생을 사이에 둔 우선순위의 갈등
사역 이후의 진로계획을 터부시하는 문화	두 마음을 품는다는 죄책감
	개인의 미래를 말하지 않는 공동체
	안개에 쌓인 미래
사역의 시간에 비례하는 경력단절의 현실	은퇴까지 지속할 수 없는 특수한 현장
	준비 없이 사회에 던져짐
	다시 길을 찾기까지 계속되는 시행착오

(1) 학생리더를 사역자로 콜링(calling)하는 시스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은혜 받은 곳에서 일하기 원했고, 때로 부르심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학생들의 삶의 현장인 캠퍼스로 나아가기 원했다.

사역자들의 신앙경력은 저마다 달랐지만 자신이 영적 성장을 경험한 캠퍼스선교단체에서 학생리더로 활동하다가 캠퍼스선교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사역자가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각 선교단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거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자들로 자신이 캠퍼스선교단체 활동을 하며 받았던 은혜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캠퍼스선교단체를 통하여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믿음생활이 시작되었고 믿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초신자여서 초반에 전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3~4학년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4학년이 끝나고 1년간 휴학하고 그렇게 훈련을 들어간 케이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결단하고 그 사역을 하게 된 케이스.” (참여자 A)

참여자들 가운데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간사의 삶을 보며 사역자로 산다는 것에 부담스러움이 있었고,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저항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매우 낮은 사례를 받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간사들의 모습을 보며 경제적인 걱정과 높은 헌신이 요구되는 간사의 업무형태에 대한 부분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실 제 마음은 하고 싶은 마음으로는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하자고 해서 그때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하기 싫는데 왜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몇 번이나 부르고, 주변에서도 다들 간사하라고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게 됐죠. (중략) 저를 가르쳐주셨던 간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후원 받아야 하는 부담감이 너무 컸고, 매달 후원을 받는데 사역서신을 써야 된다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 보였고...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깔렸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E)

또한 간사로의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 뿐 아니라 가족들의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족들이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배우자나 친구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심리적, 인지적 혹은 물질적 지지를 제공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정연, 2001). 지지체계의 불안요소는 사역을 하는 동안 간사의 피로와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사역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대학으로 들어가서 불신자인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까지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찾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기존의 교회 청년들에게 주일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캠퍼스에서 신앙의 훈련과 말씀의 전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불신자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선교단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교회문턱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선교단체는 그 학생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고, 맞춤 수 있고 교회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배를 불신자에게 맞추기는 일시적이잖아요. 선교단체는 많은 시간을 그 학생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구조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I)

특정 캠퍼스선교단체간의 사역자가 되면 선교단체간의 이동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에 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일도 거의 없고, 또한 한 캠퍼스를 맡아 사역할 때에도 장기적인 사역

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캠퍼스를 사역의 장으로 삼고, 한 캠퍼스를 장기간 사역하면서 개인이 대학을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하는 순간까지 영적 멘토(mentor)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대학생 사역에 헌신하게 된 것에는 영적 은혜의 경험을 대학생의 시기에 캠퍼스선교단체를 통해서 하게 된 것, 졸업과 함께 취직을 해야 하는 시기에 간사로서의 콜링을 받은 것,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이 시대의 기둥이 되어 다른 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역 문화

연구참여자들은 신앙의 가치와 일치된 삶을 살고 독립성이 보장되며,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에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만족의 이유로 꼽았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에게는 간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였으며, 간사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스스로가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고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 것, 즉 가장 중요한 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간사로서의 부름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위로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유익을 누리고, 캠퍼스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가장 행복했고 가치 있다고 느꼈을 때가 지도했던 학생들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되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본다면 저는 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또 쓸 것 같아요.” (참여자 P)

캠퍼스선교단체의 간사들이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사역을 선택하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며, 사역을 이어가는 것에는 이러한 강한 신념과,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산다는 것에서 오는 만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신앙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관이 매우 분명한 이들이었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스스로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에서도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또한 대학생이라는 대상과 함께 사역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역교회 사역과 차이 나는 캠퍼스 사역의 큰 특징으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독립성을 이야기하였다. 자신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현장의 영역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분이었으며, 또한 사역의 현장이 타의에 의해서 옮겨지기보다는 한 캠퍼스를 오랫동안 맡아 지속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캠퍼스 이동과 사역 대상의 이동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에도 단체 안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의 조율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되지 않았기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복음전도와 신앙의 성숙함으로 청년들을 이끄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복음의 성장으로 이끄는 일에 깊은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간사회의 등으로 캠퍼스를 가지 않는 날들을 제외하고, 매일을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공유하며 사역하고 있었다. 기도모임, 제자훈련, 리더모임, 캠퍼스 예배 등의 형식으로 많은 시간 학생들과 삶을 공유하며 가르치고 있었고,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일부는 캠퍼스 안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의 형식으로 자취하는 학생들과 함께 공동생활하며 캠퍼스를 벗어난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역한다고 대답하였다.

“학생들 만나서 케어하고, 구원의 확신의 없는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M)

“누구도 나를 먼저 찾아주지 않지만 제가 먼저 청년들을 찾아가서 친해지고 어울리고 그런 다음에 그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나와서 만남이 내게 있는 예수를 전해줌으로써...” (참여자 G)

과거와 달리 노방전도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이 매우 크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나날이 확산되는 가운데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청년들의 복음전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김성희(2019)는 청년대학생들을 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주님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바른 복음의 가치를 지닌 사역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캠퍼스에서 전도하며 이단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지역교회로 이끄는 것은 이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독박사역!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분위기

연구 참여자들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역 현장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지만 또한 사역에 대한 지지나 지원이 미비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불만을 나타내었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가 되기 전 훈련을 거치지만 훈련의 기간은 길지 않고, 사역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에 대하여 선배 간사에게 조언

을 구하여도 결국 자신이 담당하는 캠퍼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며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역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거나 잘 되지 않을 때 사역자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영적 문제나 능력 부족으로 느끼고 이를 통하여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동체 안에서 시니어 간사가 된 이들은 이러한 사역자들의 고충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지만 정서적 위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독박사역을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역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시간 사역에 내몰리면서 소진되는 경험을 하고,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 현실적으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간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으며, 일년에 두 차례 정도 있는 간사수련회와 상시적인 지역의 독서모임 정도가 공동체적으로 공급되는 영적 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때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처럼 높은 강도로 사역하고 있지만 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간사들은 아침 일찍부터 캠퍼스에 나가 기도모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늦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으며, 간사들 중에는 학사 생활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간사들도 다수 있었다.

“*대를 중심으로 이 근방의 6개 대학을 사역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했었다가 작년 2학기부터 한 형제 간사가 와서 같이 저희는 권역이라고 해서 **대권으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중략) 캠퍼스적으로도, 지구적으로도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다 부담이 되고 실제로 캠퍼스에 학생들을 많이 챙기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힘듦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퇴근이라고 하면 일단 집에 들어가는 것이 퇴근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있고 다음 날 사역 때문에 카톡으로든 형제 간사님과 회의하고 그러니 실제로 잠자기 직전까지 사역을 하다 자는 것이어서 그렇게 출근, 퇴근 이런 것이 별로 없고 주말에 토요일 정도나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그때는 좀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요일에는 한 주간의 사역을 준비해야 하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대일 제자훈련을 한다고 했었는데 13명 정도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최대한 주말에 양육을 안 잡으려고 하는데 양육이 잡히면 그 시간들이 없어지는 것이고(중략) 저희가 밥 사역을 하고 있는데 버너나 사용할 수가 없어서 센터에서 밥을 하고 이동을 하고.” (참여자 A)

참여자 A는 6개 대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일대일 제자훈련을 13명 정도 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센터에서 밥을 해서 캠퍼스로 나르는 일 등을 감당하며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8개월의 만삭인 참여자 H는 결혼 전부터 사역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였는데, 신혼도 학

생들과 함께 시작하고 현재도 학생들과 함께 살고 있다 하였다. 참여자들 가운데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사역에 대한 열정이 높고 사역자에 대한 이상이 높은 경우, 모든 시간 사역자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쉬지 못한다는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일과 여가의 시간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생활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헌신했던 선배 간사들이 있었고,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믿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인식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쉴 틈 없이 흘러간다고 생각되는 사역의 시간들을 보내며, 돌봄과 휴식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 더 빠른 소진의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피로도가 쌓이면서 사역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때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도 높은 사역으로 인한 피로감과 건강의 악화, 사역의 대상인 학생들이나 동료간사들과 갈등이 생기는 등의 영향으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 사역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사역자들은 기도와 책 읽기 등을 하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말하였으며, 참여자 J는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주일은 오로지 예배를 통해 충전을 받는다고 하였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지만, 영적 침체의 문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하여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인적인 영역으로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혼자 독립된 사역의 장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쉴 수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역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주로 저년차의 간사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 직접 현장을 담당하기 보다는 선교단체 안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고년차의 간사는 선교단체 시스템이 어떻게 간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현장의 간사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민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각 선교단체들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사역자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유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간사의 지원과 관련된 선교단체의 노력이 사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간사들이 이미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것에 대해 헌신을 담보하고 사역을 하기에 신체적, 심리적, 영적 위기 역시 헌신과 관련된 개인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함께 지고 가는 빈곤의 십자가, 후원과 폴링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사역에 대한 사례비를 후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었다. 각 선교단체에서

는 후원사역을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후원자를 모집하고, 후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로 일정금액 이상을 후원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역자를 만들어 사역적인 지지와 더불어 후원을 통한 경제적지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적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많은 사역자들이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낮은 사례를 받으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정서가 지배적이었으며, 또한 사역자로 사는 것에는 가난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후원자를 모집하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캠퍼스선교단체 가운데는 후원자 모집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동료 사역자들을 위하여 폴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는데, 캠퍼스선교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폴링시스템은 각자가 후원해 온 후원비를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재정적 창구를 마련하고, 개인이 후원한 사역비를 모금액과 상관없이 각 사역 연차에 맞게 재분배하는 시스템이다. 후원모금에 대한 부담감을 함께 이겨내고, 후원으로 인하여 사역을 그만두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적은 사례비를 받아도 함께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서 감사함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재정이 없어서 월급을 못 받은 적도 있었고, 차비가 없어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빌린 적도 있었고, 다 같이 어렵게 살아서 회식하러 가면 칼국수 먹는 것이 회식이었고 그 외에 그 이상을 먹어볼 일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도 감사했던 건 후원이 많지 않았지만 폴링시스템 해서 똑같이 나누는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요. 한 달 사역비를 다 쓰고 남은 돈으로 사례비를 켜거든요. 3, 40만원? 괜찮을 때는 더 많이 받고 60만원, 70만원? 70만원까지는 잘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50만원, 60만원?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었고.” (참여자 O)

류재린(2017)의 한국의 목회자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나라에서 조사된 성직자의 평균 임금은 162만원, 기독교 성직자는 평균 168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빚을 지지 않거나 생활을 할 수 있거나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적 보상이 사역을 선택한 이유가 아니었기에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기대수준을 나타내었다.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사례 수준이 하향평준화 되어 있기에 비교의 대상을 일반적인 직업인과 비교하지 않았으며, 이미 사역을 시작하기로 각오하였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예상한 상태라 이에 대

해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사역자로서 재정적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다면 주어진 대로 사례를 받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려움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해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때때로 고통을 느끼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나 위기로 인식하고 대안을 찾기보다는 감정과 믿음의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후원자가 끊어지고 더 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역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거나 부르심이 다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염려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는 등 생활의 변화와 맞물려 더 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이유가 사역의 동기가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자신의 소명에 대한 흔들림으로 나타난다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직한 이들 가운데, 재정적 문제로 그만 둔 사람이 있으며, 그러한 고민들을 하는 간사들도 있다고 전하였다. 결국 매우 낮은 사례비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생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사역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선교단체를 향한 교회의 불편한 시선

연구 참여자들은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교회가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과 오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때때로 이단으로 오해 받는 것과, 이단이 아님을 알면서도 배척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때로 낙심하게 된다고 하며, 캠퍼스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로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이 캠퍼스 사역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바라고 있었다.

“캠퍼스선교를 하는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까도 살짝 언급했는데 지역교회와의 동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캠퍼스 내에도 신천지라든지 다른 사이비이단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자체에서도 건전한 선교단체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을 약간 경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건전한 선교단체인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여자 F)

캠퍼스선교단체에 관한 연구에서 교회가 캠퍼스선교단체를 보는 불편함 가운데는 사역자들 가운데서 신학을 하지 않은 간사, 즉 평신도 간사가 과연 캠퍼스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대학을 막 졸업하고 20대 초, 중반의 나이에 짧은 훈련

시간을 거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바른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이가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목사 간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 K는 교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기능 외에 삶의 태도와 가치 등, 한 사람의 신앙적 성숙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캠퍼스 사역의 전문성을 신학과 비신학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고, 신학적 가르침 뿐 아니라 삶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전문성이 신학의 유무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며 삶으로 가르쳐 가는 것에 있음도 넓게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또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교회의 갈등 가운데 하나로 학생들의 모임 참여로 인한 갈등을 이야기하였다. 즉 교회가 선교단체에 학생들을 뺏기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캠퍼스선교단체를 바람직하지 못한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회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불편감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교회 사역자들의 생각에 대하여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서운함을 나타내기보다는 과거의 선교단체의 잘못과 더불어 그런 관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우선순위에서 교회 모임보다 캠퍼스선교단체 모임을 우선시하거나 더 많은 영향력을 지역 교회 밖의 외부에서 받고 있다는 경계와 비판에 대하여, 대학의 훈련 기간은 제한되어 있기에 위탁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캠퍼스선교단체에서의 훈련이 성숙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에 교회와 함께 상생하는 관계로서 청년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 하였다.

(6) 사역 이후의 진로계획을 터부시하는 문화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사직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며, 계획을 세울 시간도 부족하지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죄책감이 드는 것 같고 이것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을 가지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G)

“학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끝날 때까지는 이것만 생각하자 나중에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해서 더 오히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P)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두 마음을 품는 부정적 태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사역 이후의 삶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배제된 공상으로만 그치는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죄책감은 결국 사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사직 이후로 고민을 미루는 결과를 만드는데, 이는 사역 이후에 새로운 직업전환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하는 요인으로 보였다. 이는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이 자신의 삶이 개인적인 시간과 사역적인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삶과 사역을 일치시키고 동일시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들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처럼 퇴근 이후에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배움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사역자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배여 있었다. 이는 사역자라는 존재 이외에 한 개인으로서 기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역자 개인으로든, 공동체로든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때에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조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가장 사역연차가 오래된 L은 30년의 사역을 하는 동안 사역 이후를 위한 준비와 관련된 어떤 강의나 훈련, 정보들을 제공 받은 적이 없으며, 단지 간사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배 간사들에게 사역 이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지만 정작 자신 스스로는 사역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캠퍼스선교단체 안에서 개인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쏟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도, 당장 당면한 사역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에 사역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요 주제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큰 것으로 보였다. 당장 급한 사역들이 많고, 사역을 그만두는 시점 역시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간사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공론화하며 이야기할 만큼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으며, 또한 사역자들 가운데 많은 수의 사역자들이 신학 간사로서 대부분 목회로 진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심사도 되지 못하였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간사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직 이후의 준비를 위해 공동체의 배려를 요구하게 되면, 이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결국 미래에 대한 고민은 개개인의 몫으로 남겨지고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의 미래에 대해 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미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에 죄책감과 함께 높은 사역 강도로 인하여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또한 미래를 생각할 때 희망적인 마음보다는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지속되면 현재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에 방해를 받거나 힘을 잃게 될까봐 저어하는 모습도 보였다.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후퇴로 여겨지고 있고, 또한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자각하고 있어,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바램,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하며 미래에 대해 회피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사직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 이상의 구체적 목표나 계획 등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7) 사역의 시간에 비례하는 경력단절의 현실

캠퍼스선교단체의 역사가 언제부터인가 생각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으로만 보아도 70여년의 역사가 있다고 서론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심층면담을 하는 시점까지 연구 참여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정년을 맞이한 사역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캠퍼스선교단체의 사역자는 지역교회나 선교사역을 하는 이들보다 장기적인 사역을 이어가기 어려웠으며, 은퇴라는 사역의 마무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퍼스선교단체에서 정년까지 사역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는 개인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사역 구조에 있었다. 공동체의 폴링시스템이나 교회 사역으로 인한 보조, 가족들의 지지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 후원만으로 은퇴의 시기까지 사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이유로는 대학생 사역이라는 분명한 사역 대상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기에 나이가 많아지면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젊은 간사들이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물려나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시니어가 되더라도 현장 사역을 떠나서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내의 장이 없다는 것도 장기 사역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언급되었다. 여성 사역자들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요인도 언급되었다. 캠퍼스선교단체는 여자사역자들이 리더십을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단체 내부에서 규정으로 여성 리더십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기도 했으며, 오랫동안 남성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존재해 왔던 기독교 문화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로 캠퍼스 사역이 지속되며 쌓게 되는 경험과 전문성이 사역 공동체 안에 발휘되지 못하고 열정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새로운 간사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 이후의 진로에 대하여 남자 사역자들과 여자 사역자들은 현실의 차이를 보였다. 남자 사역자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여자 사역자들은 간사 사역을 그만두게 되는 이유로 결혼과 출산이라고 말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대부분은 선배 간사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단편적인 정보들만 갖고 있어 사역 이후로 공동체의 유대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자매간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에 이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사역 이후에 오랫동안 진로를 이어가지 못해 곤궁함에 힘들어하는 사역자들이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내가 간사를 그만두고 간사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너무 기적적인 일이고 지금 직업을 소개할 때도 뚝뚝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나와서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되나 하는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고 막막하고... 막연한 마음이 커서.” (참여자 I)

최명옥(2020)은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직업세계와의 거리감과 불안감으로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진로장벽을 매우 높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사직하게 된 사역자들은 경제적이 어려움으로 생계를 위해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일에 내몰리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는 신앙의 가치와 동일한 삶을 산다는 사역자로서의 자부심을 이어갈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 실패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어 개인의 가치감을 저하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직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도 여전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타인을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헌신되길 바라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받지도 못했고,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캠퍼스선교단체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다.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케어가 이루어지고, 사역 이후의 삶을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세 가지의 논의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소명의식과 직업만족에서의 논의이다. 심층면담 가운데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캠퍼스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을 향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으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자신의 신앙적 가치와 일치된 삶을 살고,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것에 대한 만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선영(2016)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일이라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동일시되기도 하며 일을 통해 실존을 확인하고, 일을 선택하거나 주어지는 일을 통해 느끼고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 가치, 그리고 경험이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중요하게 생각될수록 근로자의 직업만족이 높아졌다는 정주영

(201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삶에서 일이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캠퍼스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곧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소명의식과 직업만족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사역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사역자들은 후원금의 어려움과 높은 사역 강도로 인한 소진, 장기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직무의 부재, 캠퍼스 선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학생들과의 세대 격차, 여성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구조 등 다양한 선교단체의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변화의 시도는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역을 하면 경험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개인의 역량의 문제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캠퍼스선교단체 내부에서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로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의이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캠퍼스 사역의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독립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캠퍼스 사역 구조에 대해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사역자로서의 전문성이 신학을 공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학원 사역의 특성상 삶을 통한 가치와 태도의 전달, 학생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감을 통한 청년들의 전반적인 돌봄, 학생이라는 시간 동안 주어지는 집중된 위탁교육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에 신학의 이수 여부가 사역자로서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다. 김영철(1990)은 “교회에서 바라보는 선교단체”에서 예배의식에서의 경건성의 결여나 교회가 되려는 시도, 신학 기반의 취약성 및 카리스마적 지도력의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에 배타적인 이유들을 나열하며 교회의 우려에 대해 표현한 바 있다. 또한 외부적인 우려 뿐 아니라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도 독립된 사역이 주어지고 이에 따른 책임 역시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신입간사로서의 훈련기간이 충분치 않은 것을 포함하여 사역현장의 바쁜 일정과 해위를 포함하여 전국으로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단체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재훈련이나 상시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영적, 심리적, 경제적 지원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Louis McBurney(1995)는 직업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 소속감의 문제 등 사역자로서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들도 한 사람으로서 어려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Oswald, R. M(1991)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스트레스와 탈진이 아닌 건강한 사역을 위해 균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돌봄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 역시 정서적

·영적 상태에 대한 점검과 돌봄의 부재를 큰 문제로 인식하였는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역자들에 비하여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중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선교단체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돌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전문성, 특히 신학적 기반의 약함을 보충할 수 있는 훈련이 신학대학원과 지역교회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사역자들의 건강과 정서 상태를 위한 건강검진과 기독교 상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독교 병원과 기독교 대학 및 상담센터 등의 돌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로 현실인식과 미래계획에 대한 논의이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현재의 진로와 삶에 대한 긍정성 뿐 아니라 미래인식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연구를 통하여 나타나듯이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사례비를 받고 있었는데, 이들은 간사로서 돈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박영선(2004)은 믿음의 본질은 인생의 절망과 고달픔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먼저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본질로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이러한 사역자의 인식이 어떤 면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건강의 악화나 심리적이고 영적인 소진과 관련되어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에게 최저시급에 근거한 최소한의 사례비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후원모금이라는 시스템으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책임을 간사 개인에게 맡겨 두는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사역자를 길러내지 못함으로 캠퍼스선교의 전문성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은 한국교회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사역비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시스템의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의 재구조화를 벤치마킹하고, 해외파송선교를 지원하는 교회와의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사례비와 더불어 기본적인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캠퍼스선교단체의 현실을 생각할 때, 사역의 시간과 개인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월차나 연차 등의 규정을 도입하고, 사역에 대한 평가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역자들은 미래의 진로전망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간사들의 진로주체성과 긍정적 진로전망에 대한 기대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기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따른 지속적인 삶을 위해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캠퍼스선교단체는 사역자들의 미래인식에 대해 보다 분명한 파악과 더불어 이들이 사역 이후에도 간사로서의 삶의 비전과 분리되지 않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정례화함으

로,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되거나 무관심한 주제였던 간사 이후의 진로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논의로 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캠퍼스선교단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간사 개인이나 선교단체 내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에 교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가 가진 물질, 인적 자원을 통하여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교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때 파송하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간사를 캠퍼스로 파송할 때에도 그가 소명을 따라 캠퍼스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 이런 협력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때 침체되어가는 캠퍼스와 교회의 청년사역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캠퍼스 선교단체 가운데 5개 단체만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다양한 선교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현재 학원선교단체의 수는 열 개 남짓이며, 간사의 수도 전국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천 명이 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학원복음화협의회의 협조를 통하여 국내 선교단체의 현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원선교단체 사역자에 대한 연구가 더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원선교단체 사역자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사역자의 가족, 사역하는 대학의 학생, 대학 교목실 관계자, 교회의 청년사역자 등을 포함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학원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삶에 관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원선교단체 사역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원선교단체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를 주제로 하여 학원선교단체 사역자들의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효과성 검증 이후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간사들을 돕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한계와 제한점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는 마중물과 같은 연구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Chambers, O.(1997). *Approved Unto God: The Spiritual Life of the Christian Worker*. Fort Washington, PA: CLC.
- Davidson, J. C. &Caddell, D. P.(1994). Religion and the Meaning of Work.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2), 135-147.
- Duffy, R. D., &Blustein, D. L.(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Religiousness, and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3), 429-440.
- Friedlander, F.(1963). Underlying Sources of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7(4), 246-250.
- Howard, D. M.(1970). *Student Power in World Evangelism*.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Oswald, R. M.(1991). *Clergy Self-Care: Finding a Balance for Effective Ministry*. Rowman &Littlefield Publishers, Inc.
- Peters, G. W.(1984).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Chicago, IL: Moody Publishers.
- Robertson, P. J.(2013). The Well-Being Outcomes of Career Guidanc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41(3), 254-266.
- White, J. E.(1983). *The Church and the Parachurch: An Uneasy Marriage*. Portland, OR: Multnomah Press.
- Winter, R. D.(1970). *The Warp and the Woof: Organizing for Mission*. South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권선영(2014). **한국형 직업소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Kwon, S. H. (2014). *A Study 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ocational Calling Scale(VCS-K)*.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Seoul, Korea.]
- 김남용 (2019).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평신도 서번트 리더십**. 박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교.
- [Kim, N. Y. (2019). *Lay people Servant Leadership for Smal Group Activation*. Doctoral Dissertatio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Yongin. Korea.]
- 김성희 (2019). 청년전도 경험과 실태 연구조사 결과. 학원복음화협의 청년사역연구소(편). **청년전도**.

- 23-44. 서울: 학원복음화협의회.
- [Kim, S. H. (2019). Youth Evangelism Experiences and Survey Results. Youth Evangelism. 23-44. Seoul: Campus Evangelization Network.]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IV**.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Kim, Y. C. (2016).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IV**. Gyeonggi-do: Academy Press.]
- 김영철 (1993). 교회에서 바라보는 선교단체. 목회와 신학(편). **현대목회와 선교단체: 목신신서**, 9. 27-41. 서울: 두란노
- [Kim, Y. C. (1993). Missionary Groups viewed from Churches. *Pastoral and Theology. Modern Pastoral and Missionary Organization: Mokshinseo*, 9. 27-41. Seoul: Duranno]
- 김정연 (2001). 조직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활용 연구-생태체계적 모델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11, 1-20.
- [Kim, J. Y. (2001). A Study of Social Support System for Managing Organization Stress, in Focus on the Ecological System Model. *The Journal of Pubic Welfare Admimistration*, 11, 1-20.]
- 류재린 (2017). 한국의 목회자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22(1), 121-155.
- [Ryu, J. R. (2017). Pastoral Pay Differentials in Korea. *Faith and Scholarship*, 22 (1), 121-155.]
- 문정배 (2006). **캠퍼스 선교단체가 기독교대학생들에게 미치는 과제 및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Moon, J. B. (2006). *A Study on the Challenges and Impact of Campus Missionary Organizations on Christian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박영선 (2004). **젊은 사역자를 위한 리더십**. 서울: 세움
- [Park, Y. S. (2004). *Leadership for Young Ministers*. Seoul: Seum Press]
- 신광섭 (2003). Parachurch 연구를 통한 한국학생선교단체 비판과 그 대안. 서울: 총신대학교.
- [Shin, K. S (2003). *Criticism of the Korean Student Mission Organization and its Alternatives through Parachurch Research*. Seoul: ChongShin University]
- 신봉진 (2017). **대학생기독교교회 시니어간사의 경력전환경험 탐색**.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Shin, B. J. (2017). *Exploring the Meanings of Career Transition Experience of Senior Stewards of the Campus Crusade for Christ*.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윤종석 역. (2002). **사역자 상담**, Louis McBurney(1995). *Counseling Christian Workers*. 서울: 두란노서원.

[Yoon, J. S. (2002). *Counseling Christian Workers*. Seoul: Durano. Trans. Louis McBurney. (1995). *Counseling Christian Workers*.]

이광순 (1993).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Lee Kwang-soon (1993). *Introduction to Missionary Studies*. Seoul: Korean Presbyterian Publishers.]

이승장(1990). **성서한국을 꿈꾼다**. 서울: 성경읽기사.

[Lee, S. J. (1990). *I Dream of Biblical Korea*. Seoul: Bible reading.]

_____ (2001). **캠퍼스 부흥을 꿈꾼다**. 서울: 학원복음화협의회.

[_____ (2001). *Dreaming of Campus Revival*. Seoul: Academy Evangelization Council.]

이영현 (1978).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Lee Y. H. (1978). *Korean Christian History*. Seoul: Concordia Press.]

이유경(2017). 대학생 선교단체 남성 사역자 (간사) 의 스트레스 경험과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1), 129-158.

[Lee, Y. K. (2017). A Study on Stresses Experienced by Male Ministers Working for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and on the Process of their Adaptation to Stresses.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28(1), 129-158.]

_____ (2019). 대학생 선교단체 사역자 (간사) 사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적응과정 연구. **목회와 상담**, 33, 233-262.

[_____ (2019). A Study on Stresses Experienced by the Wives of Ministers engaged in Campus Missions and on the Process of their Adaptation to Stres. *Pastors and counseling*, 33, 233-262.]

임성철 (2012). **사역자매뉴얼: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역할 것인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Lim S. C. (2012). *The Missionary Manual: How to Minister Biblically*. Seoul: The Word of Life.]

정기종 (2019). **캠퍼스 사역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 “복음화”에서 “선교화”로**.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Jung, K. J. (2019). *A Plan of Paradigm Shift of Campus Ministry: From “Evangelization” to “Missional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2014).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 [Cho, H. S., Jung, S. W., Kim, J. S. &Kwon, J. S. (201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 정주영 (2013). 대학교육만족도, 직업가치관, 직업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 53-83.
- [Jung, J. Y. (2013). Structural Analysis of University Education Satisfaction, Job Value, and Job Satisfaction. *Educ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31, 53-83]
- 정준기 (2001). **기독교학생운동사**. 서울: UBF출판부.
- [Jung, J.K. (2001). *A History of Student Christian Movement*. Seoul: UBF Press.]
- 차병준(2000). **교회와 선교단체의 유기적인 관계성 연구**.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 [Cha, B. J. (2000). *A Study of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Missionary Organization*. Seoul: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 최명옥(2020). **경력단절여성의 자기성장주도성, 진로장벽인식, 진로계획 관계탐색**. 박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 [Choi, M. O. (2020). *Career-interrupted Women’s Self-Growth Leadership, Career Barrier Awareness, and Relational Exploration on Their Career Planning*. Doctoral dissertation. Gwangju University, Gwangju, Korea.]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사역경험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Ministry Experiences of Ministers in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송희영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 박사)

강연정 (고신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캠퍼스선교단체는 한국 교회에서 영적부흥의 한 축을 담당해 왔지만 캠퍼스선교단체의 사역자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관심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에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회와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사역자들이 현재의 사역과 미래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사역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의미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학생 리더를 사역자로 콜링하는 시스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역 문화’, ‘독박사역!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분위기’, ‘함께 지고 가는 빈곤의 십자가, 후원과 풀링’, ‘선교단체를 향한 교회의 불편한 시선’, ‘사역 이후의 진로계획을 터부시하는 문화’, ‘사역의 시간에 비례하는 경력단절의 현실’이라는 주요한 7가지의 결과에서 소명의식과 직업만족에 대한 논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의, 현실인식과 미래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캠퍼스선교단체,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 사역경험